

2022 두루 활동 보고서
DUROO ANNUAL REPORT

2022
DUROO



사단법인두루

목차

08p - GREETINGS
12p - TEAM DUROO

인사말
두루 사람들

16p - ① NEWS
20p - ② KEY ACHIEVEMENTS
26p - ③ ACTIVITIES

2022 두루의 1년
2022 두루의 성과
2022 두루의 활동

49p - FINANCIAL HIGHLIGHTS
52p - PARTNERS AND FRIENDS

두루의 재정
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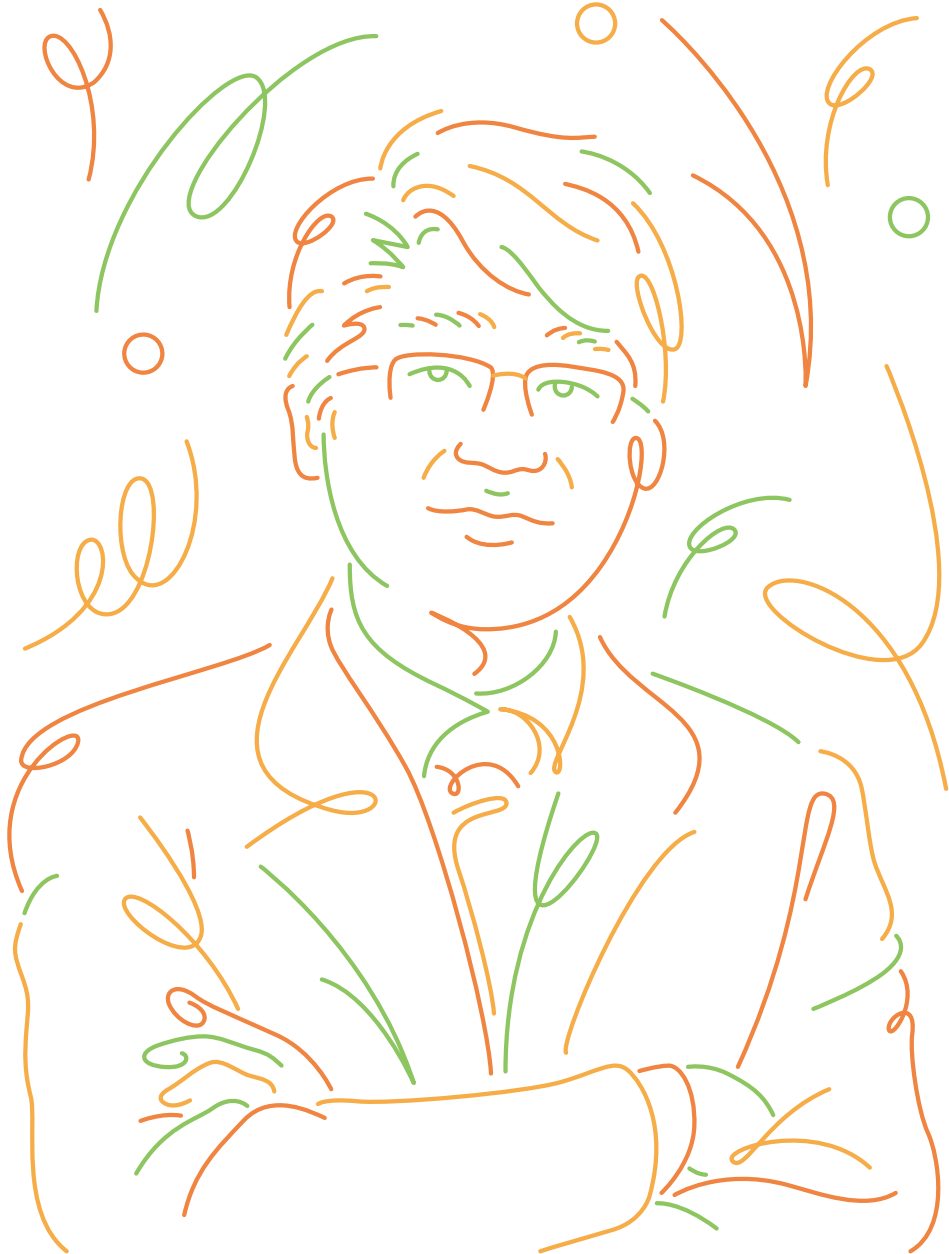
우리는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We investigate law and policies to
diagnose social problems and provide
effective solutions.**

우리는 소송과 입법운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합니다.
**We carry out litigation and advocacy activitie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우리의 활동은 변화를 만들고, 연대하며, 변화를 확산시킵니다.
**With solidarity, we work to make changes and spread
positive changes.**

법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
With law and legal expertise,
we lead social changes.

2022 두루 활동 보고서
DUROO ANNUAL REPORT



“그저 그냥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두루와 두루 변호사들이 향하는 삶의 궤적이 그러합니다.

두루와 두루 변호사들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도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발자취를 모은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한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고 연대해 주는 분들이 있어 열정은 더욱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쉬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루 이사장으로서 두루와 두루변호사들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을 거뜰히 해냈고 또 앞으로 더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늘 응원한다는 무척 짧고 소박한 말로 보고서 발간에 부치는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REETINGS

인사말

2022년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활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두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루의 회원님들, 기부자들, 연대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취약한 상황에서도 두루 구성원들에게 더 큰 기운과 응원을 보내주신 사회적 약자 여러분 덕분에입니다.

2022년에 두루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마을 LAW’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UN기구를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체계를 공고화하고자 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공익인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대시키며, 아동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귀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통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더 많은 편의점과 카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난민지침의 공개를 이끌어내어,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공직수행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선거기간 집회를 폭넓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기간 해왔던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서 정말 기쁩니다. 해오고 있는 다른 활동들도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에 두루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변화를 만들어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응원, 그리고 때로는 엄한 채찍질도 부탁 드립니다. 연대야말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변화의 새싹이 돌아날 것입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루 사무국장
이상현

이상현



TEAM DUROO

두루 사람들

이사장 김지형

- 전 대법원 대법관
- 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사 임성택

-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사 배수현

- Envisioning partners 이사
- 전 공공그라운드 대표
- 전 옐로우독 이사

이사 정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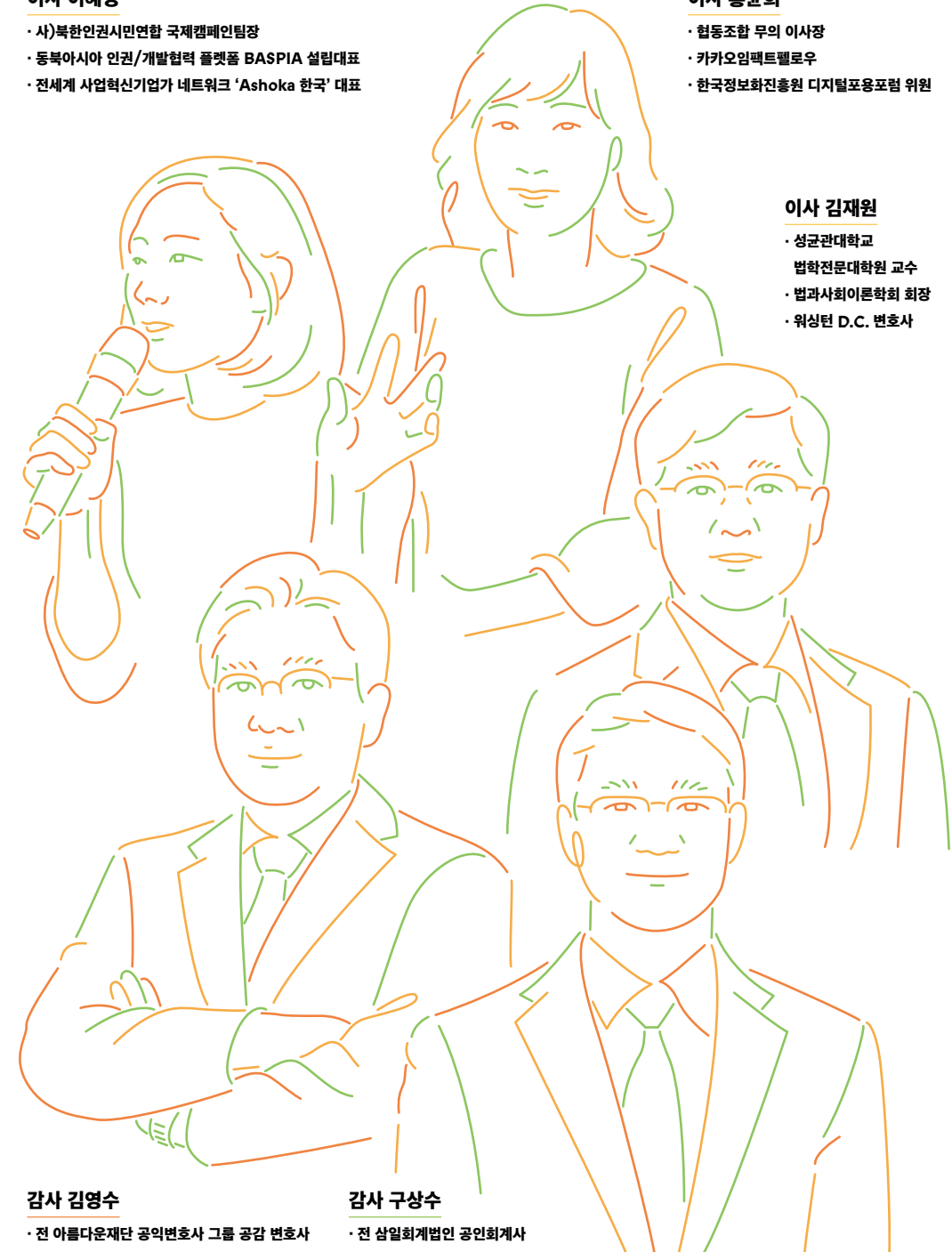
-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이사 소라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이사 이해영

- 사)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캠페인팀장
- 동북아시아 인권/개발협력 플랫폼 BASPIA 설립대표
- 전세계 사업혁신기업가 네트워크 'Ashoka 한국' 대표



이사 홍윤희

-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 카카오임팩트펠로우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포럼 위원

이사 김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 워싱턴 D.C. 변호사

감사 김영수

- 전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감사 구상수

-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법무법인(유) 지평 공인회계사/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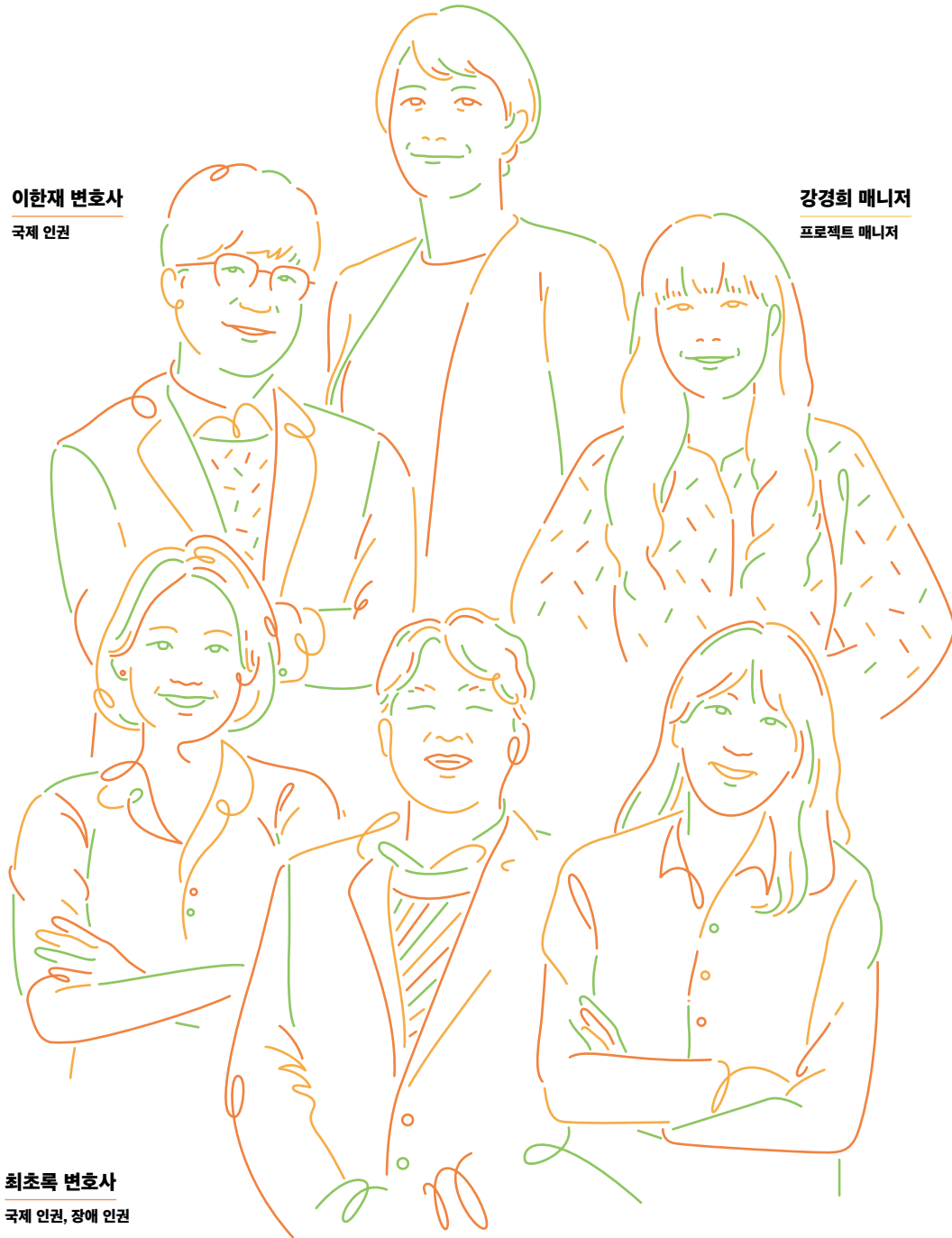
TEAM DUROO

두루 사람들

김남연 변호사
사회적 경제

이한재 변호사
국제 인권

강경희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최소록 변호사
국제 인권, 장애 인권

마한얼 변호사
아동 · 청소년 인권, 국제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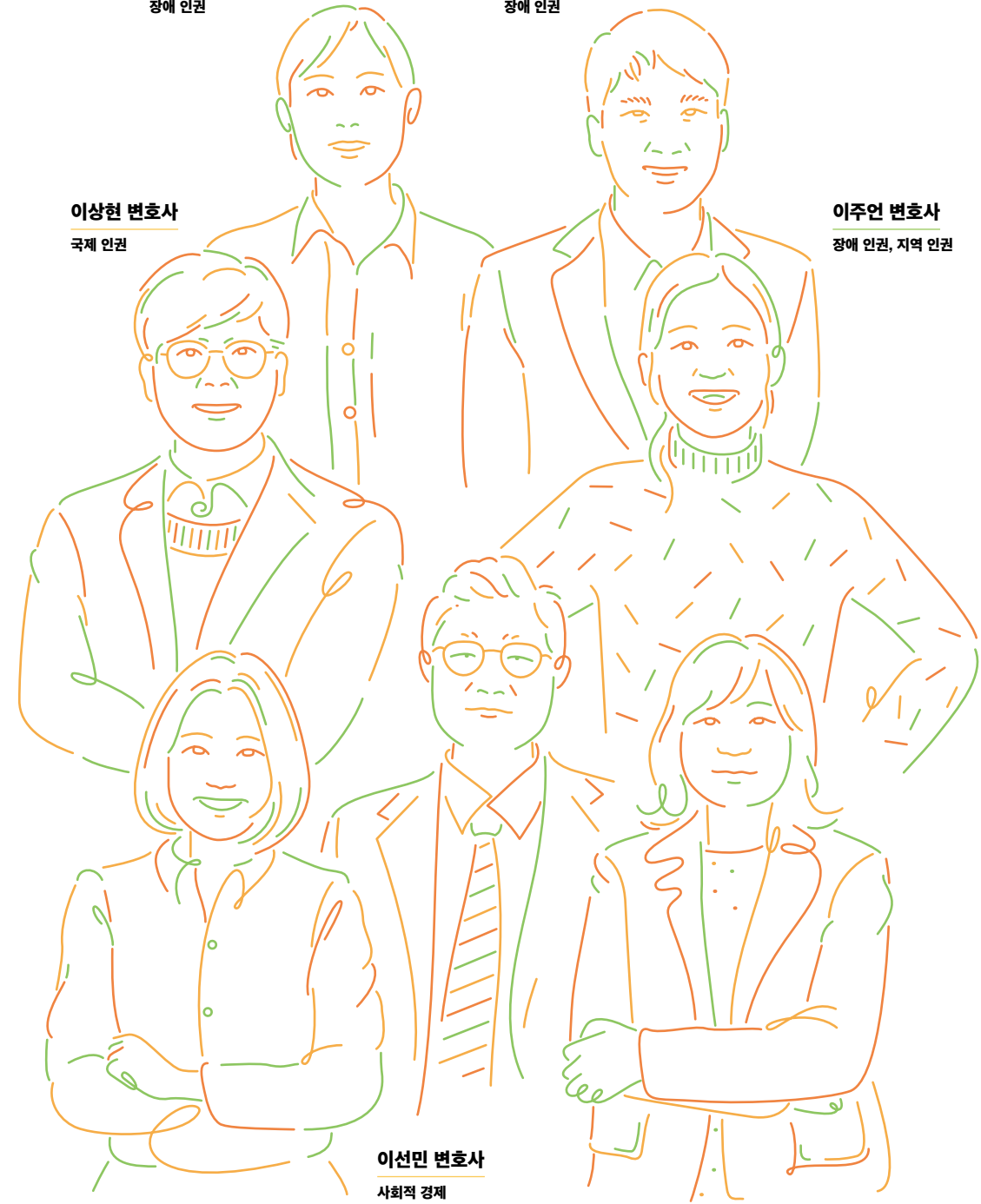
김진 외국변호사
국제 인권, 아동 · 청소년 인권

정다혜 변호사
장애 인권

한상원 변호사
장애 인권

이상현 변호사
국제 인권

이주언 변호사
장애 인권, 지역 인권



이선민 변호사
사회적 경제

엄선희 변호사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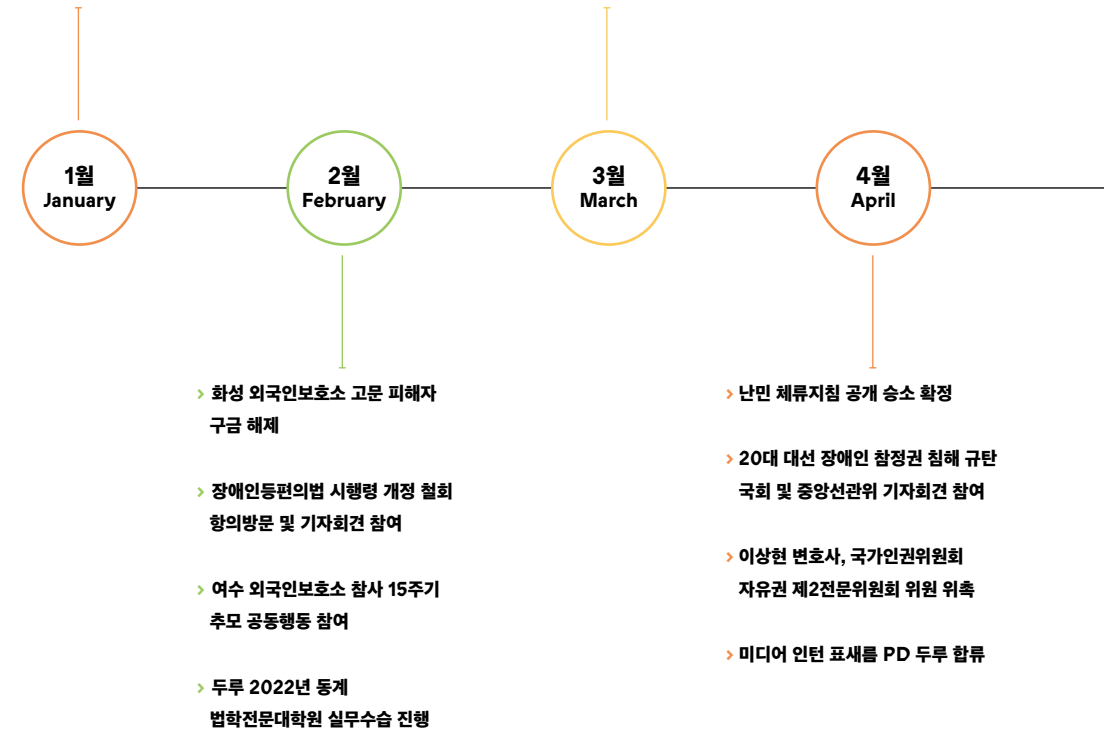
강정은 변호사
아동 · 청소년 인권

1

2022 두루의 1년

2022 NEWS

- > “1층이 있는 삶” 차별구제 청구소송 승소
- > 슬기로운 공변생활 1기 번역,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출판
- > 발달장애인 공직선거권 보장 임시조치 조정 성립
- >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 > 강정은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 제3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 >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시작



-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 > 강경희 프로젝트 매니저, 정다혜 변호사 두루 합류



- > 두루 - 유엔난민기구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 > <뿌리를 찾는 존재 “생일 없는 아이들”> 발간
- >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진행
- >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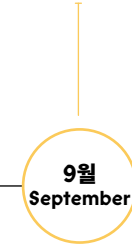


- > 두루 - 아산나눔재단 자문 파트너십 체결
-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민간보고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 >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 김남연, 한상원 변호사 두루 합류
- > 두루 2022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진행
- > 제3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 성료
-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심의 대응활동

- > 강정은 변호사, 카카오톡 펠로우 선정
-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개최
- >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여
- > 자립청년 지원정책 긴급 진단 국회 간담회 참여



-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 진행
- >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청구 승소
- > “1층이 있는 삶” 항소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진행
- > 강정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 > 온 마을 Law 광주·전남 지역 사업설명회 개최
- > 아태지역 무국적 연대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자문회의 참여
- >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 >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사전심의 참여



- >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보호 발제
-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신청자 실태조사 보고대회” 진행
-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두루에 특별 협의지위 부여

2

2022 두루의 성과

KEY ACHIEVE- MENTS

01 - 지역(부산) 활동 시작

두루는 올해 지역 공익법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부산지역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에는 이주연 변호사가 상근하며 부산·경남 지역의 공익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공익법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02 - 제5회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두루는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 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모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공익상을, 공항 환승객 난민에게도 난민신청권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또 다른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1



02

03 - 난민 지침 공개

두루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법 제정 이후 비공개로 운영되던 난민업무 지침을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두루는 난민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난민이 기본적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널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04 - '1층이 있는 삶' 소송 승소

두루는 편의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같은 위헌적인 시행령은 차별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편의점은 앞서 화해가 성립한 카페전문점, 호텔과 함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3

04



05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두루는 8년만에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 3차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루는 장애인단체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아동과 이주장애인의 현황을 알리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루가 제출한 의견들은 9월 발표된 위원회 최종견해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06 - 중국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승소

두루는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중국동 전자발찌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한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주의 의무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지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며 공익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05



06

07 — 국가공무원법 위헌 결정

두루는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정신장애인 등 성년후견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8 —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두루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7



08

09 — 강정은 변호사 카카오임팩트 펠로우 선정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카카오임팩트 펠로우 3기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인권침해 현장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간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법과 제도 안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10 — 아산나눔재단-두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자문 파트너십

두루는 아산나눔재단과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자문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두루는 본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산나눔재단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에게 사업 및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9

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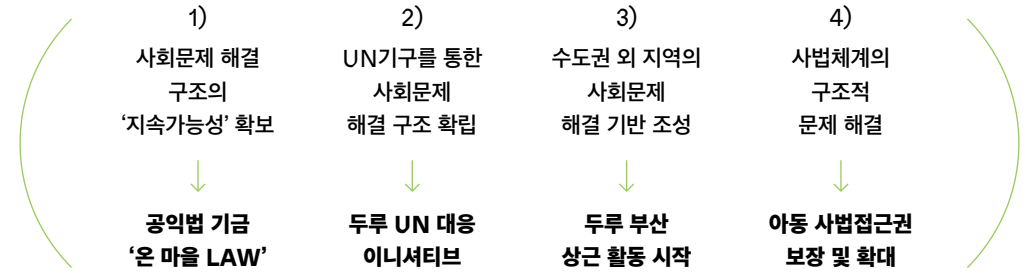
2022 두루의 활동

ACTIVITIES

2022년 두루의 사회적 영향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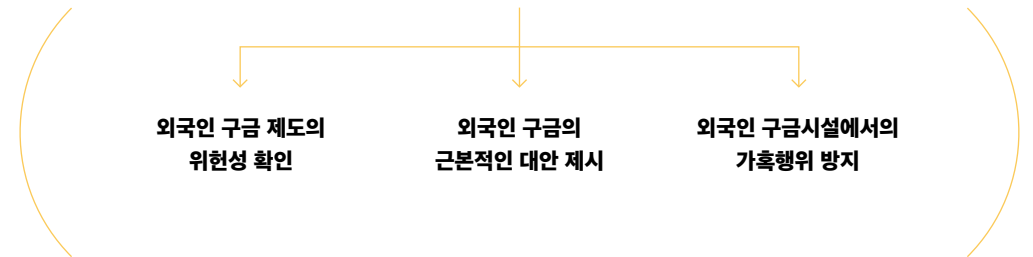
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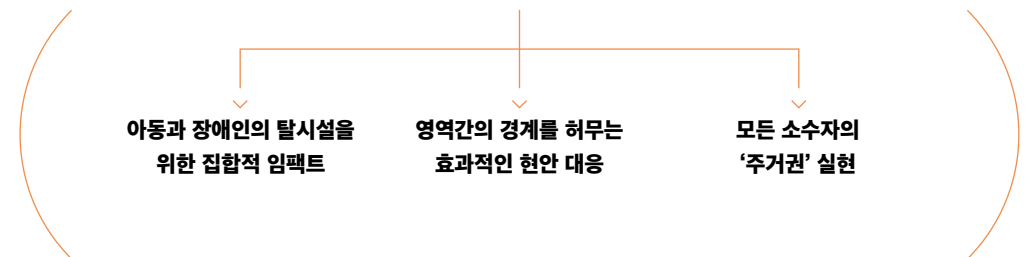
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



다

모든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가) 사회문제 해결 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 : '온 마을 LAW'

IMPACT

사회문제 해결 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

ABOUT

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익법 활동'은 시민사회 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수는 늘 부족하고, 개별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는 '복지' 관점의 기금이 대다수이며,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두루는 먼저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온 마을 Law'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온 마을 Law' 사업은 총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①아동·청소년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공익활동 지원, ②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③제도개선 방안 연구, ④지속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플랫폼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기업, 법률가, 학계, 지역사회, 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익법활동을 확산하는 공익법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다양한 상상력으로 다른 공익인권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HOW

두루는 그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익법 관련 기금 조성을 제안해왔고, 2022년 5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법률가들이 현장에 더 늘어나고 일상에서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조인,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법률가를 발굴하고 그 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법률가들이 아동·청소년 중심의 법률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활동을 독려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광주·전남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대응,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 나아가 지원사례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가) 사회문제 해결 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 : '온 마을 Law'

IMPACT	목표	2022 OUTPUT
사회문제 해결 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	'온 마을 Law' 기금 조성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재단 다방면에서 공익법률기금의 필요성 홍보 및 제안, 기획 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3년간 총 9억 규모의 '온 마을 Law' 기금 조성 두루를 사무국으로 하여 기금을 운영 (자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온 마을 Lawyer 구성 및 교육·훈련, 네트워킹 지원, 제도개선활동 협력 및 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학계, 기업 등으로 자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 마을 Lawyer 구성 (공익법률지원단 총 39명) 광주·전남지역 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 부산·경남지역 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
	기금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 22건 등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 마을 Lawyer 역량강화교육 진행 (총 3회/참여자 총 51명/교육시간 총 12시간)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기획 및 집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지원사례를 기록·축적해 제도개선의 기반 마련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기고,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 참여 및 대응활동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홍보 및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대응활동

INTERVIEW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Q. 변화를 경험하기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온 마을 Law를 통해 경험한 아동·청소년 지원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겪는 여러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도 여전히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신고와 관련한 대응이 가장 어려운데요. 최근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법률가들이 조금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변화인 것 같지만요.

Q. 온 마을 Law 사업의 지원을 받아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우연히도 제가 지원한 두 아동 모두 이주배경 아동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강제인지를 하였음에도 인지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인지 신고 및 국적취득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찌어찌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한국 국적도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온 마을 Law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A.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자원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지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설혹 관심이 있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법률가들이 많았어요. 아동과 관련한 법률지원은 전형적이지 않고 특수한 문제들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데, 자신의 본업이 따로 있는 변호사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활동비가 지원되고, 관련된 노하우가 공유된다면 지역에서도 너무 많은 부담을 들이지 않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고, 그 활동이 '지속가능(이게 중요합니다)'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요. 저희 단체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큰 부담 없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초대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도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관심있는 법률가들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나) UN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두루 UN 대응 이니셔티브

IMPACT

UN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구조 확립

ABOUT

두루는 국제인권조약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8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비준이 곧바로 충실한 이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약의 실현에는 길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UN에서는 각 조약별로 당사국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사항을 담은 공신력 있는 최종권해(권고안)를 발표합니다. 이는 이후 행정, 입법, 사법 모두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정부제출 보고서를 분석하고,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현안을 밀도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면서도 전략적으로 심의에 대응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두루는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 이주 난민 영역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교차적으로 분석하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심의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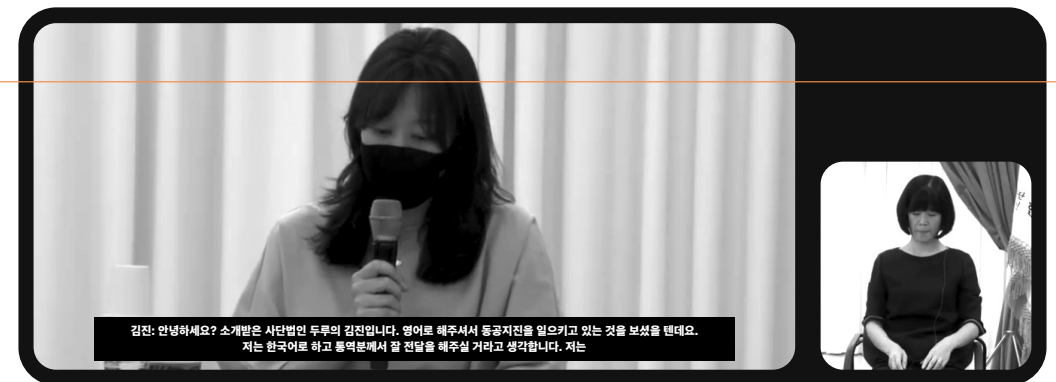


HOW

2022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에 대한 정기심의의에서도 두루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루는 이전에는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아동과 장애이주민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불안정성, 장애아동의 탈시설, 교육권과 놀 권리, 장애이주민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부재, 이주 구금 시설에서 방치되는 외국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담았습니다.

두루는 또한 시민사회연대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장애등급제, 코로나19, 성년후견, 사법접근성,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돌봄과 부양 등과 관련된 장애인권 현황이 충실히 담기도록 기여했습니다. 사전 로비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 연대체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심의가 열린 제네바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사전 간담회,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한국에게 필요한 권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위원회의 질문과 한국정부의 답변을 모니터링하며 숨가쁘게 활동했습니다.

지난 10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최종권해(권고안)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권, 장애아동의 놀 권리 등에 대한 권고가 폭 넓게 담겼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가 재차 담겼습니다. 두루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고 이후 약 2달 만인 지난 12월, 한국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무려 14년 가까이 기다려온 것으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입니다. 영어로 해주셔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한국어로 하고 통역분께서 잘 전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나) UN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두루 UN 대응 이니셔티브

IMPACT	목표	2022 OUTPUT
UN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구조 확립	UN 국제인권조약 시민사회 공동심의대응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심의대응 시민사회연대체 구성 · 유엔국제인권조약 심의대응 시민사회 교육 수행 · 시민사회단체 제출 보고서 자문 ·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시민사회보고서 공청회 개최
	UN의 인권적인 권고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장애인주민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심의 시민사회보고서 집필 및 제출 · 이슈브리핑 자료 집필 · 현지 비공개 브리핑, 심의 모니터링 수행 · 장애아동의 탈시설, 교육권, 놀 권리, 장애인주민 등의 권리 보장 관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형성
	UN 국제인권조약 이행 점검 시민사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지표개발
UN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 현지 기자회견개최

INTERVIEW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국장



Q. CRPD 심의 대응활동을 두루와 함께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좋았나요? 향후 활동 계획과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4년 한국 정부의 UN CRPD 1차 심의 이후 8년 만인 2022년에서야 2·3차 병합 심의가 열렸습니다. 심의간 기간이 길다보니, 장애계에서도 경험있는 활동가가 적었고, 개인적으로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에게 함께 길을 찾을 친구가 있지요! 심의 대응 관련해 궁금한 것, 잘 모르겠는 것들을 경험 많은 우리의 친구 두루에 많이 물어보고 함께 궁리하며 참 든든했습니다. 두루는 풍부한 경험을 나눠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을 꼼꼼히 살피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신나게 놀 권리, 그리고 이주장애인의 교차적 차별을 짚어낸 보고서 덕분에 우리는 더욱 다양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최종견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국내 투쟁을 하기에 늘 빠듯한 사회적 소수자 그룹에게, 국제 사업은 사실 멀고 어려운 분야이지요. 때로 유엔은 거대한 장벽 너머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 너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튼튼한 사다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 기꺼이 연대해주시는 두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10년 후어나 4,5,6차 병합 심의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연대로 일궈낸 최종견해가 10년간 잊혀져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언뜻 너무 요원해 보이는 '10년'이라는 시간 앞에 주눅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뚜벅뚜벅 성실히 가보겠습니다. 두루도 든든한 길동무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요!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다) 두루 부산 상근 활동 :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IMPACT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ABOUT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0.4%이고, 공익변호사의 99%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공익사건을 발굴하기 어렵고, 여건과 여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필요한 때 적절한 지원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익변호사의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루의 이주연 변호사는 2022년 활동지역을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HOW

부산에서 이주연 변호사는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 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부산의 시민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활동가들이 어떤 인권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빈곤, 시설 수용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발굴하고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위 실태조사와 별개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적장애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학대,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게 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직무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예비 공익변호사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두루는 부산 지역에서의 활동 시작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들을 더 양성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회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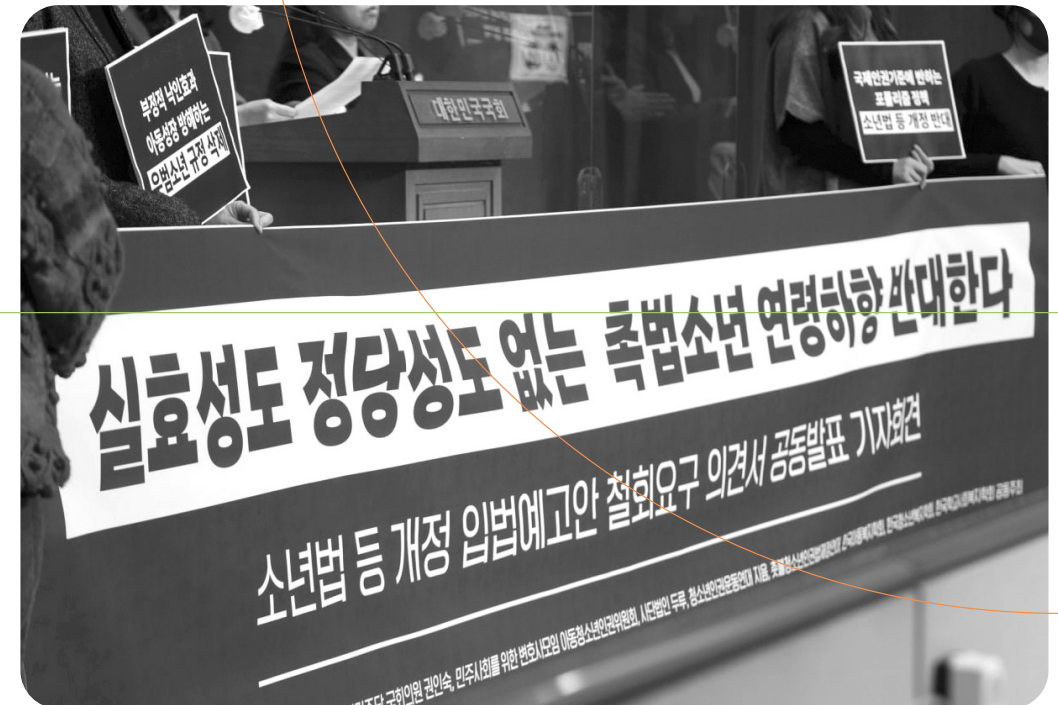
다) 두루 부산 상근 활동 :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IMPACT	목표	2022 OUTPUT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대응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권실태조사 수행 · 부산 노동교육 단체 설립을 위한 기획 과정 참여 · 부산 지역 로스쿨생의 공익 변호사 진로를 위한 강의 및 면담 진행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활동
	지역 활동가 주도형 인권 문제 대응 시스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장애인단체 사례회의 법률자문 및 특강 · 부산 장애인단체 사례회의 법률자문 · 부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
	지역에서의 법률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발달장애인, 귀화 이주민,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장애인 노동자의 소송 등 법률지원 ·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총 20회) · 지역 내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장대현학교 특강
	UN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 현지 기자회견개최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라)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확대

IMPACT	ABOUT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확대	<p>사회 일각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아동사법제도의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아동의 사법접근권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아동사법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전문가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p> <p>아동사법제도의 폐지·축소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접근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아동사법제도에 놓인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나아가 교육과 연대활동을 통해 두루 뿐 아니라 아동 당사자, 활동가 및 법률가의 역량을 강화해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아동에게 아동권리에 기초한 법률지원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p>



*출처: 기본소득당유혜인의원실

1.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

라)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확대

HOW

두루는 수사단계에 놓인 아동 피의자를 포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고 있으며, 아동을 둘러싼 상황과 아동의 욕구, 특성 등을 고려해 아동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자문과 소송 등을 통해 아동이 사법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판법인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 성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의 경우에도 소년이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두루는 이와 같은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아동사법제도가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두루는 아동 당사자, 활동가, 관계종사자, 법률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대·협력하여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일련의 경험과 과정을 잘 기록하여 추후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다른 제도개선활동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더 많은 법률가와 활동가들이 아동사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이 확산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IMPACT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확대

목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확대

2022 OUTPUT

아동 중심의 사법제도 개선

- 보호처분 대상 아동 상담 및 수사절차 지원 12건
- 소년보호사건 및 우범소년규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등 소송 기획 및 수행 9건
- 성폭력·성매매 피해아동, 난민신청아동,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수용자자녀, 시설보호아동, 청소년한부모, 학교폭력피해아동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아동의 소년보호사건 지원

연대활동을 통한 변화의 확산

-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공동요구안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아동사법제도에 관한 자문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형법, 소년법, 형집행법 정무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심포지엄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보호' 등 아동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
- 아동당사자, 현장종사자, 예비법률가 및 법률가, 대학생 등을 위한 아동사법과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 9건/교육참여자 약 600명
-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기획 및 집필, 발간
- 아동사법제도 관련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아동사법제도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 대응 및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 사무국에 참여하여 아동사법 관련 파트 작성, 현지 로비활동

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

IMPACT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

ABOUT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합부로 감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라는 외국인 구금시설에는 구금 대상의 제한이 없어 아동과 난민들도 구금되고 있습니다. 구금의 상한이 없어 강제퇴거가 불가능한 사람들마저 수 년간 기약 없이 구금되기도 합니다. 이주구금시설 내부 의료, 보건, 옷, 식사 등 처우는 교도소보다도 열악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공권력 행사는 통제되지 않고 있고 외부에 의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OW

두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무기한 구금과 아동구금을 막기 위하여, 위법한 구금에 대하여 사후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의 인간다운 처우를 위하여 다양한 진정과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공항에서의 구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기획 및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이주구금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송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루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조만간 위헌결정이 내려져서 반인권적인 이주구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두루는 이주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 및 해외 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주구금시설의 실태조사·방문조사에 참여하여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하였고, 조약기구의 한국의 조약 이행상황 심의 시 한국의 상황을 유엔 등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외 전문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

목표 2022 OUTPUT

외국인 구금 제도의 위헌성, 위법성 확인

임팩트 소송

-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참여
- 위법한 이주구금에 대한 보상법제 부재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 4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 공항난민 보호실 구금조치에 대한 최초의 소송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

인식개선 및 언론대응 활동

-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6,140명의 서명운동 기획 및 참여

연구 및 조사 활동

- 사례집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발간, 논문 <아동의 헌법적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의 위헌성> 집필

국제연대 활동

-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기획 소송 프로젝트 (Advancing Child Rights Strategic Litigation, ACRISL)에 참여



외국인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방지

임팩트 소송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사건에 대하여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개방적 시설 개선에 관한 협의 2)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 및 생활비 지원 3)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대부분 불송치, 불기소 결정 4)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연구 및 조사 활동

-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개최,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적 운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기여

입법대응 활동

-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제·개정 논의 이슈화

국제연대 활동

- 국제사회에 한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의 정신건강 문제 (CRPD) 및 이주구금 제도 전반의 문제(UPR) 제기

외국인 구금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

입법대응 활동

-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시

인식개선 및 언론대응 활동

- 이주구금제도의 관련 4차례 기자회견 및 6차례 토론회/심포지엄/간담회/학술대회

국제연대 활동

- 5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 국가의 현황 공유, 제도개선 방안 논의

3.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IMPACT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ABOUT

두루는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홀리스 모두의 '탈 시설' 즉, 모든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화된 지원, 자유로운 선택과 삶, 평화롭고 건강한 나이 들, 가정 환경에서의 양육,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등 탈시설의 필요성을 찾는 시작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홀리스 탈시설이 연결되는 이유는 타인을 이웃으로 맞이해 곁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중국에는 내가 공동체에서 받고 싶은 환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의 지지와 환대가 필요합니다.

두루는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을 만들어 영역과 영역 사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 인권운동 활동가, 지원현장 활동가, 연구자, 당사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응합니다.



*출처: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HOW

두루는 2021년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을 발족한 이후, 2022년에는 이 모임의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응하고, 언론에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두루는 아동탈시설연구모임과 함께 2022년 1월 국회에서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여하여 시설중심의 아동보호제도의 대안으로 주거 중심의 서비스지원을 제안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강은미 의원실의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아동탈시설연구모임과 함께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아동·청소년 탈시설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획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내부에서는 정부의 아동탈시설로드맵 발표에 대응해 아동탈시설로드맵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2021년 7월에 제기한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에 적용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진정이 1년만에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요청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출처: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출처: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3.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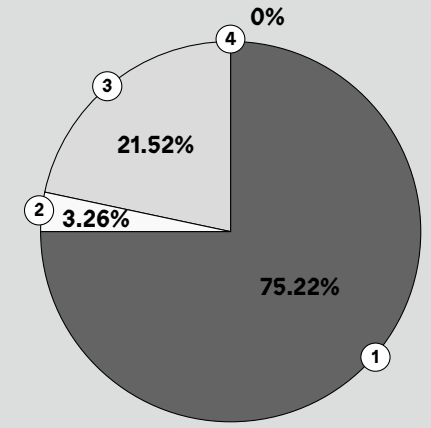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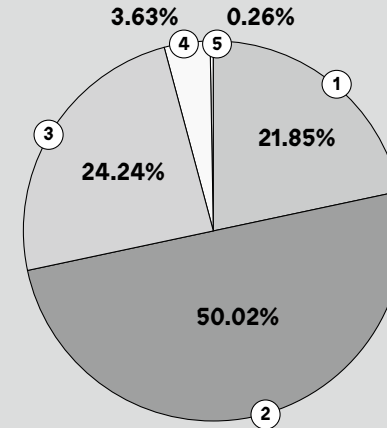
목표	2022 OUTPUT
다양한 전문가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탈시설연구모임 구성 및 진행 · '장애아동의 시설보호', '성소수자 청소년과 쉼터', '가정위탁 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모임 진행(총 10회) · 국회 토론회 · 간담회 공동주최 2회, 국정감사 공동 대응 · 자립청년 지원 정책과 탈시설의 필요성 기획기사 참여 등의 언론 대응
소수자 영역을 넘는 탈시설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에 코로나 관련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아동시설 격리에 관한 연대 진정 · 코로나 관련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아동시설 격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그 결과 대응 · 탈시설정책위원회 참여 : 장애아동의 탈시설에 대한 토론회 참여 · 탈시설 운동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탈시설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모든 소수자의 '주거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참여 ·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의 단체 설립 과정 참여 · 청소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서 작성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 중심 대응

FINANCIAL HIGHLIGHTS

2022 두루의 재정

수입 총 1,091,594,486 원

지출 총 866,131,163 원



1. 개인 및 단체 기부	253,196,376 원
2. 법인 기부	525,000,000 원
3. 프로젝트 지정기부	230,500,000 원
4. 연구용역 등 사업	38,090,909 원
5. 이자 및 기타	44,807,201 원

1. 공익법률활동 (변호사 급여)	650,414,826 원
2. 그 외의 사업비	54,106,482 원
3. 경상비	193,175,902 원
4. 기타	-31,566,047 원

PARTNERS AND FRIENDS

함께하는 사람들

목표① 빈곤종식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코이카
목표③ 건강과 웰빙	애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의친구들
목표④ 양질의 교육	겨레얼학교, 자오나학교, 장애인교육아울다,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목표⑤ 양성평등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애란원,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목표⑥ 물과 위생	녹색연합, 석포제련소대응공대위, 환경운동연합
목표⑦ 에너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탈탄소자원순환소설벤처법률지원단
목표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베어베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지구인의정류장, 코엑터스
목표⑨ 혁신과 인프라	아산나눔재단



보는 두루의 파트너



목표⑩ 불평등 완화	이주글로벌컴팩트시민사회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표⑪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무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환경연합
목표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채식선택권헌법소원대리인단, 탈탄소자원순환소설벤처법률지원단
목표⑬ 기후변화 대응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청소년기후행동
목표⑭ 해양 생태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목표⑮ 육상 생태계	동물보호단체라이프, 동물해방물결
목표⑯ 평화와 정의-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장애인법연구회, 정보공개센터
목표⑰ 파트너십	코이카

회원 Members

강울리	김성수	김재원	마한열	배수현	양영태	이공현	이승민	이혜영	정남이	최초록
강정은	김영수	김지형	문영화	서문용채	엄선희	이상현	이인복	이혜은	정다혜	한상원
강혜련	김용진	김진	박호경	소라미	오세훈	이상희	이주언	이훈	정미자	한철웅
구상수	김우연	김태오	배기완	신종길	유정민	이선민	이태영	임성택	지현영	홍윤희
구정모	김윤희	김판수	배성진	심희정	윤재민	이소영	이한재	임승혁	최윤영	황인영

기부자 Donors (2021년 12월 기준)

강민제	권준희	김영문	김진	박상규	송경훈	유성욱	이소영	이준희	장현진	차혜민
강성준	권창영	김영수	김진우	박상진	신민	유주원	이승민	이중현	전미희	천영석
강소라	김경빈	김영하	김태형	박성철	신유정	유하영	이승현	이태영	전상용	최세훈
강영준	김규성	김옥림	김태희	박순영	신정숙	윤영배	이영선	이한재	전선주	최정규
강울리	김나영	김옥영	김판수	박승대	신채림	윤재민	이은달	이행규	정다혜	최정식
강정은	김다희	김용길	김학규	박정태	신하나	윤효근	이우규	이혁준	정병수	최창민
고세훈	김동희	김용진	김현	박정현	심민현	은우종	이유나	이혜은	정석현	최초록
고우현	김무자	김윤원	김형석	박지현	심희정	은종균	이유진	이훈	정선혜	최현민
고효정	김병선	김윤희	김형수	박혜은	안상태	이공현	이은영	임성택	정원	표슬비
곽영주	김보영	김이태	김희진	배성진	안중성	이광선	이재승	임정석	정원영	한목련
곽은비	김성수	김재원1	마한열	배수현	양영태	이민주	이정민	장성원	정진	한정희
구자형	김성우	김재원2	문수생	배영근	엄선희	이상근	이정주	장슬기	제니김	한철웅
권다은	김수영1	김재임	문윤희	백정혜	오승욱	이상현	이주언	장유정	조은아	허전권
권순철	김수영2	김재진	민창욱	백중현	오자성	이상희	이준길	장윤정	조희주	홍성의
권오용	김수지	김지영	박동열	사봉관	원보람	이석재	이준오	장지화	지현영	홍지완
권윤주	김영란	김지형	박범용	서문용채	유동호	이선민	이준혁	장품	차은혜	

(주)드림원에프앤씨 법무법인(유) 지평 전국장애인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장보협 사회적협동조합)
 (주)톤28 유닉스노무법인

2022 두루 활동 보고서
DUROO ANNUAL REPORT

발행처. 디자인.
사단법인 두루 오블리크

사단법인 두루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1층 사단법인 두루
T. 02-6200-1853 / F. 02-6200-0811
E. duroo@duroo.org / W. duroo.org



사단법인 두루